

卍

韓國의 크리스마스 썰 夜話 24

(1989-1991년도 발행분)

이창성/크리스마스 썰 동호인, 수집가

1989년

1. 도안



전지상의 왼쪽 최상부부터 썰 번호 1-5까지와, 11-15, 21-25까지 15종의 썰 도안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겨운 풍습을 그리고 있다.

A. 썰 번호 1: 무지개 위에 걸려 있는 그네를 타는 아낙네를 그리고 있으며, 토끼와 개구리가 보고 있다.

B. 썰 번호 2-3: 썰 2매가 한 도안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초에 널뛰는 소

녀들을 그렸는데 널판위에 앉은 개구리와 오른쪽 무지개 위에 개구리가 서 있는 모습으로 두마리가 있다.

C. 썰 번호 4: 무지개 위에 앉은 아낙네의 치마에는 원앙새와 개구리가 있으며, 호랑나비가 나르고 있다.

D. 썰 번호 5: 연날리는 소년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토끼, 그 위에 앉은 개구리.

E. 썰 번호 11: 술상을 들고 가는 아낙네.

F. 썰 번호 12: 갓쓴 노인은 아이들 세배를 받기 위해 십리길을 걷는데 개구리가 쳐다보고 있다.

G. 썰 번호 13: 설빔으로 때때옷을 입고 머리는 곱게 땀으며 푸른 땡기 붉은 땡기를 바람에 날리고 있다. 위에는 빨간 목단꽃이 피어 있다.

H. 썰 번호 14: 장옷차림의 아낙네가 먼길을 떠나는 데에는 무지개와 보리도 피어 있으며, 머리 위에는 개구리 한 마리 앉아 있다.

I. 썰 번호 15: 해가리개 삿갓을 쓴

아낙네의 삿갓 위에는 개구리가 있다.

J. 싹 번호 21: 어린이를 업은 여자가 무지개 위를 걸어가고 있으며, 보리가 피어 있다.

K. 싹 번호 22: 팽이를 돌리는 소년의 옆에는 개구리 한마리가 쳐다보고 있다.

L. 싹 번호 23: 선비 할아버지가 한 손에는 고서를 들고 손녀를 업고 있으며 면산에 걸려있는 해위에는 개구리가 앉아 있다.

M. 싹 번호 24: 선머슴 총각은 흥을 돋구어 제기를 차고 있으며 그것을 각각 무지개 위에서 왼쪽에는 명명이가, 오른쪽에는 개구리가 쳐다보고 있다.

N. 싹 번호 25: 말탄 아낙네와 말의 꼬리에는 개구리 한마리가 있으며, 나비가 그 옆을 날고 있다.

이 도안들은 지난 1932년부터 1940년까지 Dr. Sherwood Hall이 그린 도안 중 남대문만 제외하고 총망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겨운 풍습을 그린 것이다.

2. 풀리지 않은 도안의 악세사리

1989년의 싹은 도안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주도안과 전연 관계가 없는 동식물로 인하여 큰 고심을 갖었으며, 필연코 도안자가 무슨 곡절이 있어서 악세사리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하였지만, 18개의 무지개만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상될 뿐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서 부득이 도안자에게 문의를 하여 알게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부도안의 수수께끼가 풀림으로써 도안을 음미하는데 깊이가 생긴듯 하다.

1) 개구리- 개구리는 11종의 싹에 나

타나 있는데, 첫째는 도안자의 어린시절에 캄캄한 밤길을 등불없이 가는데 개구리 우는 소리로서 길을 바로 잡아가서 목숨을 구한 일이 있거니와 일본, 중국 등에서는 복이 돌아 온다고 하여 복된 동물로 취급하고 있어서 도안에 채택하였다고 한다.

2) 토끼- 친한 우인의 12지가 토끼띠였으며, 그 뛰어난 재능과 지혜로서 많은 도안상의 착상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도안채택의 큰 동기가 되었다.

3) 목단꽃- 싹번호 13의 설빔 상부에 커다랗게 빨간 목단꽃을 채택한 것은 평소 잘알고 있는 목판 민화의 대가인 유관열 화백이 즐겨 목단을 소재로한 민화를 많이 제작한 것도 있으나 동양의 미를 상징하는 꽃의 대표로서 채택하여 보았다고 한다.

3. 도안가의 편모 및 약력

1989년 싹 도안은 1990년 5월에 미국 보스톤에서 11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 연합 세계대회를 병행해서 있었던 <1989년 세계크리스마스 싹 콘테스트>에서 서양화가이며 공예작가인 광계정 여사가 도안한 전통풍습 그림이 당당히 1위의 영예를 획득하였다.

1963년에 홍익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하여 1970년에 제3회 한국민속공예전에서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방면에서 정진하여 많은 국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폭 넓은 활동중에 있다.

4. 전지 (10×5 = 50매)

번지상의 구상이라든가 호소문 도안과 제조처 등은 1988년과 색채까지 동일하다.

5. 소형 쉬트

짚은 모두 15종임에도 불구하고 짚 번지 1-5, 11-15의 10종만을 소형쉬트로서 발행하고 있는 까닭에 짚의 초보 수집가는 도안을 살펴 보지도 않고 10종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허다하다.

번지상의 여러가지 문구는 전지를 축소하여 동일한 색채로서 인쇄되어 있다.

6. 짚 안내문

짚과 동일한 색채로서 천공까지 인쇄하여 15종의 도안에 대하여 시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정겨운 우리 풍습>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7. 판촉봉투

짚번호 1을 4배로 확대하여 짚과 같은 6도색 인쇄로한 판촉봉투는 1988년도 것과 비교하여 보면 호소문이 확대되었으며, 허부에 대한결핵협회의 주소 등이 인쇄되어 있다.

8. 관제 무공의 출현

짚의 무공에는 제작상의 실수로서 발생하는 무천공 짚과 짚 제작소 자체가 무슨 목적을 갖고 일부러 무공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제작된 것은 후자에 속하며, 발행매수는 미상이나 크

리스마스 짚 동호회의 회원우대로서 작성되었다고 한다. 50매 짚 전지와 10매 소형쉬트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9. 각종 자료 (DATA)

구분	내용	비고
발행년도	1989년	
도안내용	정겨운 우리 풍습	
도안자	곽계정	
발행종류	15종	
인면	22 × 32mm	
천공	단식점공 11½	
쇄색	6도	
판식	그라비아	
전지구성	10 × 5 = 50	
소형쉬트	5 × 2 = 10	
판매가액	100원	
인쇄소	한국조폐공사	
발행매수	26,000천매	
짚의 부대인쇄물	판촉봉투, 안내문	

1990년

1. 도안



한국의 전통 혼례식의 풍속도를 15종

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지된 연유인지 50매 전지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구입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형쉬-트 구성은 2종류로 혼례행렬 장면을 기준으로 각각 상견례와 이불행렬의 2종류로 유머스럽게 그려져 있다. 그중 하단에 혼례행렬이 인쇄된 쉘에서만 그라비아 판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84년 9월 1일에 발행된 한국의 풍속 특별우표 4종 및 소형쉬-트 1종과 도안이 유사하다.

2 판촉봉투

소형쉬-트의 공통도안인 혼례행렬 5종을 실물크기로 보라색 배경의 169 × 118㎜ 봉투를 제작하였다.

봉투의 이면에 1990. 10. 10,000매 제작이라는 글이 있는 점으로 보아서 쉘보다 판촉봉투의 완전수집이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듯 하다.

3. 크리스마스 쉘의 기념 실체봉투

그 해에 발행된 크리스마스 쉘을 연하우표 발행일에 그 우표와 같이 혹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쉘을 표면에 부착하여 사용된 것이 해방후 처음 완전 수집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야말로 희귀한 봉투 수집품이라 할 수 있다. 가능하면 등기로하고 그 등기의 영수증까지 수집

하여 두는 것이 좋은 수집방법인듯 하다

4. 관제 무공의 계속 제조

2종의 소형쉬-트에 발행수 미상의 무공이 존재하다.

5. 각종 자료 (DATA)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년도	1990년	
도안내용	시집가는 날	
발행종류	15종	
도안자	장 완 두	
인 면	22 × 32mm	
천 공	단식 11½	
쇄 색	6도	
판 식	그라비아	
소형쉬트	5 × 2 = 10매	
판매가액	120원	
인 쇄 소	한국조폐공사	
발행매수	24,998천매	
쉘의 부대	판촉봉투,	
인 쇄 물	안내문	

1991년

1. 도안





추수 10종, 율놀이 10종의 두종류 소형쉬-트가 발행되었다.

두종류의 주제가 10종의 썸로서 한쪽의 그림을 구성하며 1매씩 분리하여도 썸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일반적인 50매 전지는 지난 해부터 그 모습을 감춘 것은 수집가로서 섭섭함을 금치 못한다.

2 판촉봉투

은색바탕에 추수의 하단 5종의 썸을 실물크기로 인쇄한 것이나 우표의 침부라든가 등기번호의 압인에도 불편하니 실체하는데에는 부적당하다.

크기는 전년과 동일한 크기이며 제작매수 15,000매로 5,000매가 증가되었다.

봉투의 내부에 썸의 유래, 크리스마스 썸의 성급은 이와 같이 사용된다는 내용 설명과 추수와 율놀이에 대한 김영태 시인의 시적인 문장이 적혀 있다.

3. 크리스마스 썸의 실체봉투

연하우표의 발행일이나 크리스마스날에 가능하면 등기로서 송부하되 일반의

일부인도 좋으나 연하특별인이 시 이상의 주사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으니 일반 일부인과 특별인을 병합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로라인은 사용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4. 관제 무공 소형쉬-트의 계속발행

금년도 2종의 소형쉬-트가 존재하며, 발행량은 미상이다.

5. 각종 자료 (DATA)

구분	내용	비고
발행년도	1991년	
도안내용	추수와 율놀이	
도안자	양호일	
인면	22×32mm	
천공	점공단식 11%	
쇄색	6도	
판식	그라비아	
소형쉬트	5×2=10매	
판매가액	120원	
인쇄소	한국조폐공사	
발행매수	29,522천매	
썸의 부대	판촉봉투,	
인쇄물	안내문	

● 참고문헌

1). 원색한국우표도감(1991-우문관 발행)

2). 보건세계, (1990. 7월호-대한결핵협회 발행) ㄸ

우표옆에 썸 한장 이웃위한 작은정성